

* 협회 상담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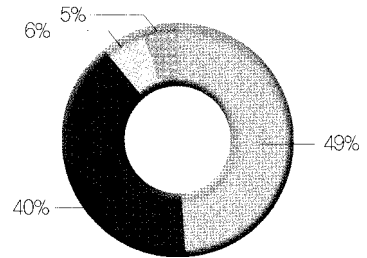
2007년 상담 결과 분석

우리 협회는 2005년부터 전국 11개 상담실에서 전국공통 상담 전화(1588-5448)를 통한 전화 상담, 홈페이지(www.aids.or.kr) 상담게시판을 통한 온라인 상담, 내방 상담, 검진 상담(익명검사 : 서울, 대구, 광주, 창원)을 실시해 오고 있다. 여기서는 2007년 한 해 동안 실시한 상담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글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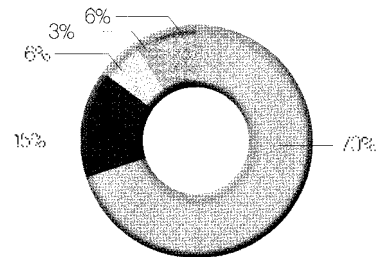
상담의 주요 내용은 에이즈 감염 경로와 증상 및 검사 방법에 관한 것이었는데, 대부분 감염이 걱정되는 성접촉이 있은 후 상담을 요청해 오고 있었다. 이러한 성접촉 중 대부분이 성매매로 인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약 70%)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한 상담의 추이와 별반 다름이 없어 사회 전반적인 성매매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에 반해 콘돔 사용률은 19%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7년 질병관리본부 발표자료 (출처: 2007년 에이즈에 대한 지식, 태도, 신념 및 행태 조사)에 나타난 우리나라 국민 중 일시적인 상대와의 성접촉 때 콘돔을 사용하는 비율 33.7%보다 매우 낮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 국민의 콘돔 사용률이 2년 전보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선진 외국의 콘돔 사용률(평균 40~60%)에 비하면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다. 앞으로도 콘돔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이 보다 효과성 있게 전개 될 필요성이 있다.

표 1] 매체별 상담 실시 현황



■ 전화상담 ■ 온라인상담 ■ 검진상담 ■ 내방상담

표 2] 성접촉 유형별 현황



■ 성매매 ■ 콘돔 ■ 동성 ■ 외도 ■ 구강

내담자 중 남녀 성비는 남성이 78%로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과거보다는 여성의 상담 요청이 증가(16% → 28%)한 것으로 보아 여성들의 성문화가 개방화 되고 있다는 점을 짐작하게 해 준다. 혼인관계의 경우도 여전히 미혼자의 상담(71%)이 기혼자의 상담(29%)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상담을 요청하는 주요 연령층은 20~30대로 그 비율이 78%나 차지하고 있었는데, 검진 상담과 면접상담의 경우 85%에 이르고 있다. 연령 비율은 상담 매체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전화 상담의 경우 30대가 많고, 온라인 상담의 경우 20대가 월등히 높았다. 한편으로 정부 발표 통계에 따르면 에이즈 감염인 발견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상담 현황에는 50대 이상의 상담이 높지 않은데, 중년/노년층 인구에게 에이즈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매체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에이즈 무료 익명검사(문의 및 예약 1588-5448) 상담도 연간 1,800여 건이 이루어 졌는데, 보건소에서 무료 익명검사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협회 상담소를 이용한 이유는 검사결과를 20분 내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신속성(42%)과 신분의 노출 염려 없이 검사가 진행된다는 익명성(26%)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단체의 전문성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용한다는 응답도 13%를 차지했다. 검사 전후에 이루어진 설문 조사에서는 검진 상담 전체 과정(검사전 상담, 검진, 검사후 상담)에 대해 거의 대부분의 내담자가 만족한다(매우 만족 96%, 만족 3%, 기타 1%)고 응답했다.

우리 협회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에이즈 포비아' 상담에 대한 별도의 분석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결과를 간단히 소개하고자한다.

'에이즈 포비아'란 에이즈 전과경로와 관련이 없는 일에서 에이즈 감염을 우려하면서 반복으로 검사를 시도하고, 검사결과 음성인 나왔음에도 자신이 에이즈 감염되었다고 의심하면서 걱정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내담자

표 3. 상담 사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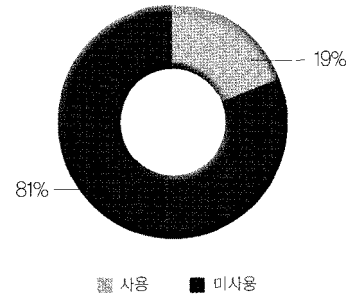


표 4. 성별 상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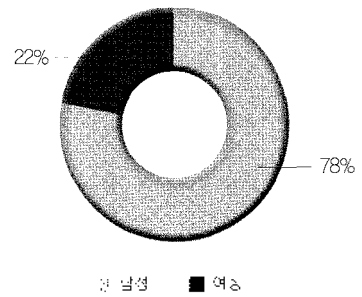


표 5. 혼인여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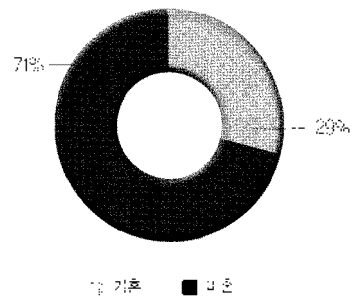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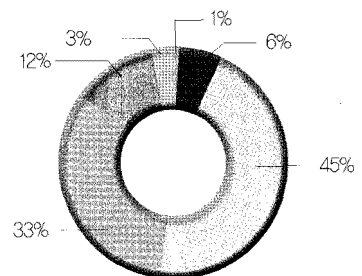


표 6. 연령별 현황



19 이하 ■ 20-29 ■ 30-39 ■ 40-49 ■ 50 이상

중약 14%가 에이즈 포비아 증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포비아들이 에이즈로 상담하고 고민해 온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인 경우가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검사회수도 2~5회, 5~10회가 각각 30% 였으며, 10회 이상 검사를 받은 경우도 4%나 되었다. 두차례 이상 에이즈 검사를 받고도 심리적 안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63%에 이르고 있다는 통계를 얻을 수 있었다.

여러 차례 검사를 반복하는 이들은 협회 검사소, 보건소, 병원 등 검사 기관을 바꿔가면서 검사를 하고 있으며, 검사 담당자의 말 한마디, 정보내용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검사 자체를 불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가족과의 일상생활 및 공중시설 공동이용 등으로는 감염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에 불편한 한가지 일'에 대한 의문이 들 때마다 반복적으로 상담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러한 증상이 지속되는 원인을 상담을 통해 유추해 보면 해외 에이즈 홍보자료에 담긴 과도한 공포 이미지를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70~80년대 조장되었던 '감염인 격리'와 같은 위험 이미지가 고착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결과 의료 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술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거나, 헌혈, 당뇨 검사에서 사용하는 주사기나 바늘의 위생 상태에 대해서 과도한 집착을 나타내고 있었다. 음식물이나 혈액제제 및 수혈에 대한 막연한 걱정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중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현재 '정신과 치료 중' 이라고 답한 비율이 59%에 이르며, 절반 이상이 관련된 약을 복용중인 것으로도 나타났다. 에이즈 포비아는 개인의 기질상의 문제라 여길 수도 있지만, 에이즈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저변에 깔려 작동하는 있는 것으로도 보여진다.

협회 상담실에서는 이들에 대한 심적 안정을 최대한 돕고 있으며 전화, 온라인 상담으로 부족할 때 내방상담을 권유하여 정기상담을 실시하거나, 외부 상담전문기관이나 정신과연계 등으로 최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표 7] 익명검사 선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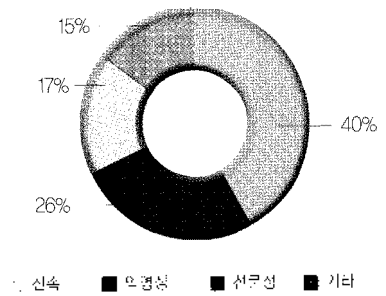


표 8] 포비아 고민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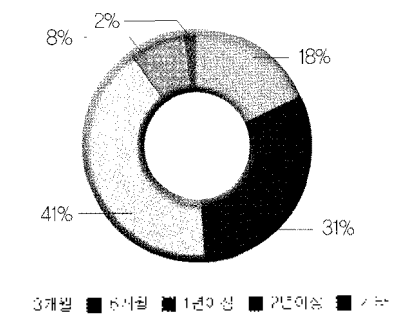


표 9] 포비아 검사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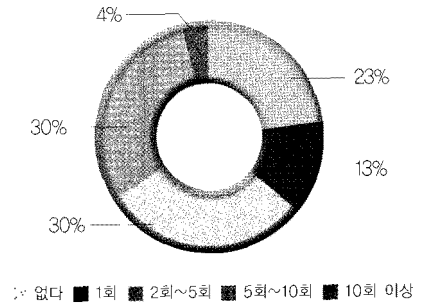


표 10] 포비아 정신과 치료 현황

